

언론 사람

2018
vol.214

04

04

인터뷰

박수용 교수



09

위원단상

언론중재위원회를 떠나며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글·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그림 같은 계곡마을 북파키스탄 훈자

북파키스탄 길기트에서 중국 국경 쪽으로 카라코람 하이웨이(KKH)를 달리다 보면, 옛 실크로드 옆에 언덕 마을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배낭 여행자들이 최근 자주 찾는 계곡마을 훈자(Hunza)다.

지도에는 카리마바드 (Karimabad)라고 표시된 곳으로 전체 인구가 6만.

이 마을 뒷산 이글네스트(Eagle Nest)에 동네 여인들이 소풍을 왔다. 최고의 전망대다. 누구라도 훈자를 찾으면 이곳 풍광에 반할 수밖에 없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곳에 반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배경을 이 곳으로 했을 정도다.

위쪽엔 산세가 특이하기로 이름 난 레이디 핑거(Lady Finger, 6,000m)가 있다. 이름 그대로 여인네의 뾰족한 손가락 모양이다.

동서양의 장점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파키스탄 남쪽이나 인도와는 종교도, 문화도 확연히 다르다. 세상은 참 넓고 색깔도 느낌도 다양하다. 🌈

CONTENTS

2018 April
Vol.214



언론+



사람+

- 02 Close-Up
그림 같은 계곡마을
북파키스탄 훈자
- 04 인터뷰
박수용 교수
-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미투가 즐거운 언론사들?
고개 든 어뷰징,
선정적 제목 클릭 낚시
- 07 언론법 이모저모
현행 명예훼손죄,
무엇이 문제인가
-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상투적인 표현들
- 09 위원단상
언론중재위원회를 떠나며

- 10 세상읽기
수작하는 법
- 11 푸드텔링
빵의 과학
-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 15 따뜻한 아이디어
입는 인큐베이터
(Embrace Infant
Warmer)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4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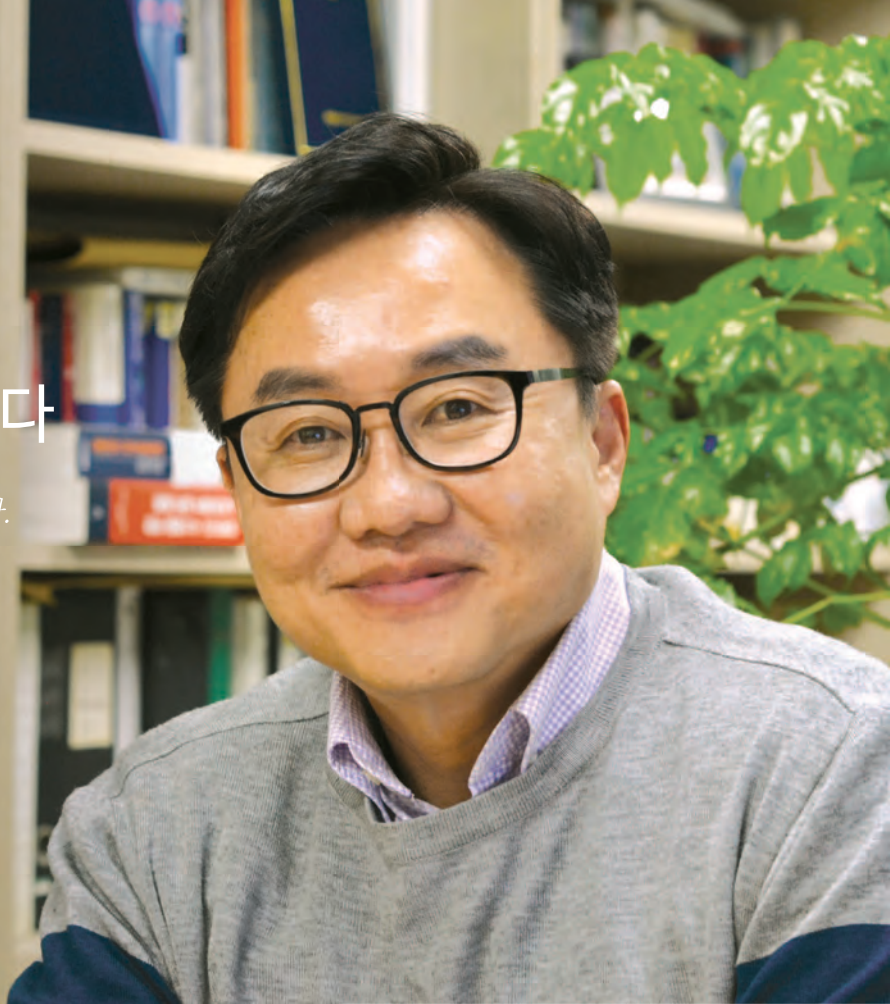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보증하는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자유로운 거래의 시대를 열다

미래를 바꿀 혁명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이 각광 받고 있다.
가상화폐로 이슈가 된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블록체인 전문가인 서강대 박수용 교수를 만나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진행 | 홍보팀 남승균 팀장, 정승희 과장
사진 | 남승균 팀장



Q |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을 이끌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개인 간 거래 내역이 기록된 거래장부인 ‘블록’을 공유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동호회비 관리를 위해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총무를 맡기지요. 하지만 평판이 좋아도 신뢰의 문제는 남습니다. 총무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회비 지출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총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지출 내역을 조작해도 다른 회원들이 가진 기록과 대조하면 금세 들통 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가상화폐는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참여’에 바탕을 둔 신뢰의 기술로, 신뢰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A |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내용은 위·변조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블록체인은 원본 기록이 중요한 분야에 효과적입니다. 선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고 선거 결과도 쉽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Ujo’라는 음원사이트가 생겼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소비자가 음악을 구매할 때 코인을 사용하여 음원을 만든 아티스트와 음반사에게 직접 값을 지불합니다. 제3자를 거치거나 보증 기관이 필요했던 거래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Q | ‘스팀잇’과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SNS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콘텐츠의 수정이나 삭제가 어려워 잘못된 내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 누군가 콘텐츠를 만들어 블록체인에 올리면 ‘블록’에는 콘텐츠가 가진 고유값은 암호화되어 기록됩니다. 사용자는 암호화된 값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콘텐츠의 내용을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콘텐

*컴퓨터 언어로 기록된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변환한 것

초에 부여된 고유값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콘텐츠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블록체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합의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는 콘텐츠의 처리에 대한 참여자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도 있을까요?

A |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값은 신뢰할 수 있지만 콘텐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1-0으로 이겼는데, 0-1로 졌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우리 팀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어내겠지요. 이처럼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 기사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아닌 포털사이트나 SNS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디어도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A | 지금까지의 인터넷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었죠. 이에 반해 블록체인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스팀잇(Steemit)'은 독자들이 코인으로 콘텐츠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게 합니다. 소액이라도 생산자의 노력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동기가 부여되고, 품질이 좋을수록 콘텐츠 생산자는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포털사이트나 SNS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 올해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블록체인학과를 개설 하였습니다. 블록체인학과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A | 학과 개설 후 변화사, 의사 등 전문직종은 물론 개그우먼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했는데요. 이처럼 각자의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학과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여러 분야



박수용
교수

- 서강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조지메이슨대 정보기술학 박사

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정보 등 공공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개발자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 속속 등장하는 첨단 기술로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인간과 기술 간의 사회적인 마찰을 줄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 | 새로운 변화에 앞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이메일이 상용화될 무렵, 스팸 메일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메일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메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오늘날 이메일은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만든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태동기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험적 시도와 소규모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블록체인은 '신뢰 사회'를 앞당기는 훌륭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미투가 즐거운 언론사들? 고개 든 어뷰징, 선정적 제목 클릭 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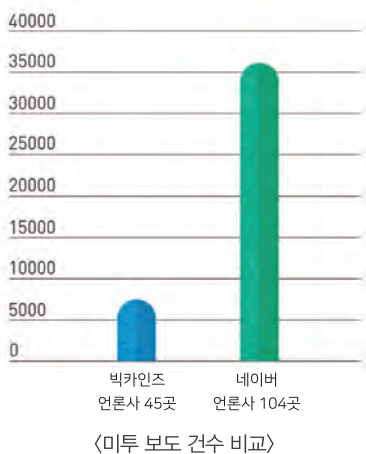
김양순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대한민국이 늘 그래왔지만 3월은 유독 숨차게 달려온 느낌이다. 환호와 비난이 엇갈리는 가운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마무리됐고,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영정이 특사로 파견돼 남북 관계는 10년 만에 극적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차세대 대선주자로 촉망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거세진 #미투 속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옷을 벗었다.

이 모든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3월 9일은 #충격의 금요일로 불릴 만 했다. 출근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전격 발표해 세계 뉴스를 요동치게 하더니 안희정 전 지사는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학생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던 조민기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인간존중’이라는 가치로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된 것도 이날이다.

술한 이슈 속에 다시금 #미투 이야기를 꺼내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주변에 몇몇은 이미 #미투 기사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격랑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니...



104곳이다. 숫자로만 보면 빅카인즈 등재 언론사의 2배가 좀 넘는데, 조회 기사 수는 5배가 되는 마법의 비결은 어뷰징이다. 언론사들의 현대판 마법 지팡이나 다름없는 어뷰징(Abusing)은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

#미투를 검색어로 한 달간(2.21~3.21) 빅카인즈에 등록된 언론사 45곳(조중동 제외)이 생성한 기사 수는 6,985건이다. 반면 네이버에서 같은 기간 같은 검색어를 넣으면 35,247건의 기사가 뜬다. 무려 5배가 넘는 기사 건수다. 2월 네이버 뉴스검색제휴 심사 결과, 현재 검색제휴 언론사는

적으로 전송하거나 제목을 살짝 바꿔(주로 자극적으로)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언론사 어뷰징 문제가 심각해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까지 만들며 단속을 해왔지만 #미투 국면에서 어뷰징은 물 만난 모양새다.

“이혼한 여성의 욕구”, “속궁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일지 씨 기사의 경우 빅카인즈에서 75건, 네이버에서는 868건이다. 동일 기사를 제목만 바꿔서 끝없이 올리는 전형적인 어뷰징 행태다. 소비자에게 클릭을 유도하면서 제목은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한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유튜브 어뷰징은 더욱 심각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프레시안 기자의 키워드로는 3,030개의 유튜브 동영상 뉴스가 검색된다. “정봉주 웃었다, 왜?” “정봉주XA씨의 카톡 보면 느낌 오잖아?” 처럼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로 유혹하는데 영상을 누르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전 지사와 비서 김지은 씨를 검색하면 13,000여 개의

뉴스가 뜬다. 더욱 자극적이다. 그러나 클릭하는 순간 속칭 “호갱”이 된다. 해당 뉴스는 그저 흔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한토막을 잘라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클릭하는 순간 광고비를 기부한 셈이다.

피해자들이 목숨 걸고 내놓은 #미투의 상황을 에로소설처럼 각색해 제목을 달고 끊임없이 어뷰징하는 언론사들. #미투를 돈 벌 기회로 보면서 피로감이 몰려들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



〈미투 유튜브 어뷰징 캡처본〉

현행 명예훼손죄, 무엇이 문제인가

김주연 | 변호사

“억울해요. 치과에서 처음에는 1년만 교정하면 끝날 거라고 해놓고 2년도 넘었거든요. 교정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면 대응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참고하라고 올린 건데, 치과에서 당장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요.” 이런 상담이 종종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개인한테 힘든 일하기에 글을 내리라고 권유하는 편이다.

병원, 음식점 등에 대해 나쁜 후기를 올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물론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실무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A는 성형 수술이 잘못되어서 배상까지 받았는데, 그 후 B(A의 친구)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하면 좀비가 된다고 평을 써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후에 병원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여기서는 병원이 패소하였다. 만일 B가 형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 생각한다.

위의 일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게시한 글이 사실이고(의견과 사실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넘어가겠다),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인데도,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강하게 나가면 글을 쓴 사람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하는데, 공익성 입증은 주관적 판단이라서 아무래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문제다.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면, 문제된 글을 삭제하는 편이 개인 입장에서는 더 간편하고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를 당해 법적 대응을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덧붙여 혹시 유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도 뒤따른다. 일개 개인이 공익 정보 적시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반대급부로는 과하다. 기자라면 직업적 명예가 뒤따르기도 할 테지만, 일개 개인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 불려 가고, 운이 안 좋으면 재판에 불려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글을 지운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장 큰 폐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다름 아닌 미투 운동 때문인데, 성폭행을 고발한 어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소송을 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라는 맞고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말이지 아이러니하다. 지금은 미투 운동이 사회적 물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고소 맞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미투 운동이 아니었다면 가해자들의 대응 로드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병원들이 고소 운운하며 전화를 돌리는 것만 봐도 가해자들이 어땠을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옳은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논의가 분분하다. 2016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하자는 쪽이 49.9%, 유지하자는 쪽이 33.2%였다고 한다. 필자는 관련법을 수정해서 유지하자는 쪽이다. 이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한 것치고는 김 빠지는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가령,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부모가 전과자더라’, ‘저 여자 정숙해 보이는데 이혼을 두 번이나 했더라’라는 등의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손해배상액)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 민사 손해배상만으로 규율하기는 힘든 것이다. 관련 조항 수정 등에 대해서 첨언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부분을 ‘공연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도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린 데 대하여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수사를 시작하는 등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과 운용 행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의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드라마 속 상투적인 표현들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너답지 않게 왜 이래?”라는 대사에는 높은 확률로 “나다운 게 뭔데?”라는 대꾸가 이어집니다. 자식의 결혼발표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부모가 있고, 내 아들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은 꼭 액수를 알 수 없는 돈 봉투를 건넵니다. 카페에서는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 물을 끼얹고, 원수는 꼭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죠. 부부의 위기는 결혼사진이 걸린 액자가 깨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하는 8~90년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함께 침대로 쓰러지며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거나 발치끼로 슬립이 떨어지는 것으로 성적인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산장에서 몸을 포갠 두 사람 옆에서 주전자가 세차게 김을 내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웃음이 터지는 장면들이죠.

이밖에도 드라마 속의 상투적인 대사와 장면은 금방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외도를 다룬 드라마에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지칭하는 ‘상간녀’와 마주 앉아 기싸움을 하는 여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만남은 왜 하필 양측이 모두 망신을 피할 수 없는 카페일까요? 번거로운 장소 섭외가 필요치 않은 한강 둔치나 인적이 드문 공원을 두고 굳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도덕적 우위를 확인하는 쪽에서 그들을 엿보는 주변의 손님들을 자신의 편으로 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또 카페라는 장소에서 가능한 최고의

모욕, 옷차림을 훼손하고 망신을 주는데 최적의 소품이 냉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 끼얹기도 처음에 고안되었을 때는 깜짝 놀랄 만큼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금기를 우회하거나 상황이나 감정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더 이상 신선하지 않거나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과 감정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경우, 우리는 그 표현의 상투성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상투적인 표현은 무조건 배척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시대의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되고 여러 편이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긴 호흡의 드라마는 상투적인 표현과 상황에 적극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드라마 보기는 동시대의 윤리나 규칙으로 인한 갈등으로 빚어지는 삶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관점을 넓히고 나와 다른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죠. 상투적인 표현들은 속담이나 관용어처럼, 드라마와 나, 나와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 표현과도 유사합니다.

상투성은 드라마를 비판할 때 단골로 도마에 오르내리는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상투적인 것을 생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들은 톡톡 튀는 대사, 인상적인 상황으로 인물의 갈등과 감정을 둘도 없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과 대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유행의 흐름을 타고 상투적인 것의 자리로 옮겨가기도 하죠. 이를테면 “애기야 가져”, “장인이 한 땀 한 땀”같은 유행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의 저승사자와 도깨비의 모델 워킹 장면도 여기저기 수도 없이 인용되고 패러디되었죠. 그 스스로 상투적인 요소를 생산해내는 대중작가인 드라마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안에서 상투성을 전복하는 시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패러디의 형식으로 말이죠.

상투적인 상황이나 대사의 대부분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적 관습에 기초하고, 작품이 속해있는 장르의 법칙과 연관을 맺습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패러디를 통해 유통기한을 연장하기도 하죠. 어떤 것이 상투적이며, 이 시작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는 것. 또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로맨스의 도구로 삼거나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는 장면들처럼 과거에는 무리 없이 넘겼던 표현과 설정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가? 의심하는 시청하기는 드라마를 비평적 관점에서 즐기는 방법이 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떠나며

정재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번 2018년 2월 26일자 법관인사로 저는 창원지방법원을 떠나 대전지방법원으로 전보 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2월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맡으면서 처음 중재부장을 맡은 후 약 6년간 중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재판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는 당사자들이야말로 저를 있게 해 주는 분들이라 생각하며 성심껏 대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제가 심리를 맡았던 사건들 중에 단기간에 여러 사건을 신청하여 중재부장으로서 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당사자가 생각납니다. 모 지자체가 신청한 사건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비판보도를 하는 지역 언론사에 대해 조정신청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사건은 조정 사건이 대부분인데 딱 한 번 중재결정을 하였던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신청인은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자기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신청인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심리 결과 반론 및 일부 정정보도와 향후 무혐의 확

정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나중에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위 합의에 따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재부는 심리 결과 위 합의를 중재합의로 보고 중재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북중재부에 있을 때 중재위원 및 소장님과 함께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5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지리산 배재봉에 올랐던 기억,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산의 풍광을 즐기고 유명한 풍천장어를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특히 중재부장을 세 번하면서 소장님 한 분과 두 번이나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은 제가 전북중재부에 있을 때 처음 만났었는데, 작년에 경남중재부에서 다시 만나서 중재부장과 소장으로서 함께 손발을 맞추는 인연을 가졌습니다. 소장님은 '아마 저와 소장님은 전생에 부부의 인연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재부장직을 그만둘 때에도 꽃다발을 주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등 아주 훌륭한 환송 행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신청인 중에는 지방의 작은 신문사나 인

터넷매체가 많습니다. 그런 피신청인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쓰고 이전 기사로 인하여 명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신청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경우는 정정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비판 내지 의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재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언론사 간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언론사 관계자의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중재부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중재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재위원 및 직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저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수작하는 법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수작(酬酌)’이란 말은 원래 술잔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다. ‘값을 수(酬)’, ‘술 따를 작(酌)’이다. 두 글자의 좌변에 있는 ‘유(酉)’는 처음에 중국에서 술을 의미하는 한자였다. 술단지 모양이다. 후에 물 수(水)를 더해 지금의 술 ‘주(酒)’가 됐다. 수작은 주인과 객이 술잔을 권커니 갖거나 하며 서로를 공경하고 대접하는 예의였다.

술은 유정(有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유정한 나눔 주고받으니 정이 통하고, 정이 통하다 보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수작을 거는’ 것이다. 주안상을 들여온 주모에게 “어이 자네도 한 잔 하실런가?”하며 한 남자가 술잔을 건넨다. “허튼 수작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 주모는 짐짓 이렇게 응수(應酬)한다. “아직은 당신하고 정을 나눌 생각이 없네요”라는 속내다.

그 ‘낭만적 수작’이 현대에는 ‘개수작’이 돼버렸다. 영똥한 수작, 뻥한 수작, 더러운 수작이 판을 친다. 수작을 ‘걸거나 붙이지’ 않고 ‘부리거나 꾸민’ 자들이 줄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걸 거의 매일 지켜 봐야 하는 세상이 됐다. 수작이 원수다.

‘혼술’과 ‘혼밥’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좋은) 수작할 기회마저 사라져갈 태세다. ‘펜스 룰(Pence Rule)’이 도처에서 수작에 펜스(fence, 울타리)를 치고 있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며 사생활의 원칙을 밝힌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면서 직장과 조직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자신(남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펜스 룰이 비책으로 떠올랐다. 회식이나 업무협약이나 소통채널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또 다른 여성 차별이며 여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펜스 룰은 사실 이 시대의 남성들이 “나는 여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 성희롱 아니면 무시박에 없는 것이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성찰하는 숙제를 던진 것인데, 그 해법으로 한 쪽을 아예 왕따시키겠다 하니 비책치고는 참으로 하수다.

여성과 수작할 기회마저 봉쇄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작(酌)’은 참 지혜로운 한자다. ‘짐작(斟酌)’은 술을 따를 때 넘치거나 적으면 예의에 어긋나므로 양을 가늠하는 데서 나온 단어다. ‘머뭇거릴 짐(斟酌)’이다. ‘작정(酌定)’은 짐작을 한 후에 따르는 술의 양을 정하는 것이다. ‘무작정(無酌定)’ 따르다 보면 잔이 넘쳐 무례한 사람이 된다. 술이 약한 상대에게는 ‘참작(參酌)’을 해야 한다. ‘헤아릴 참(參)’이다. 상대의 주량을 헤아려 술을 적당히 따라주는 배려다.

수작을 잘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 고대에 술을 뜻한 ‘유(酉)’변이 들어간 단어들이다. 수작을 하면 일단 ‘감흥(酣興)’이 인다. ‘술을 마시고 한껏 흥겨워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탐(醺)’이 된다. 술에 빠진(沈) 모습이다. 탐닉하다 보면 ‘마칠 졸(卒)’이 들어가 ‘취할 취(醉)’가 된다. 그만 마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 술잔을 잡고 있으면 사람이 ‘추(醜)’해진다. 귀신(鬼)이 되는 것이다. ‘배필’이나 ‘배우자’에 쓰이는 ‘짝 배(配)’라는 한자는 자기(己)가 술단지 옆에 놓고 다정히 술잔을 나누는 형상을 갖고 있다. 좋은 수작을 하면 어찌 짝을 짓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짐작하고, 작정하고, 참작하면서 수작하면 즐겁다. 미투도, 펜스 룰도 필요 없을 게다. 선현은 풍경과도 수작했다. 봄이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

빵의 과학

이용재 | 음식평론가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 덕분일까. 쌀밥, 콩밥, 옥수수밥 등 갖가지 밥이 존재한다. 하지만 밀밥은 없다. 밀 알곡이 단단한 탓이다. 밥과 빵은 여기서 갈린다. 쌀은 도정만 거치면 알곡을 그대로 익혀 먹을 수 있지만, 밀은 빵은 과정 즉 제분을 거쳐야 한다. 제분은 제빵의 첫걸음이다. 일단 가루를 냈으니 물을 붓고 반죽해서 구우면 어떻게든 먹을 수는 있다. 인류 최초의 빵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인도의 차파티(Chapati),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인 무교병(Matzo) 등이 대표적이다. 빵의 역사는 3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빵은 하나같이 납작하다. 빵이 납작한 이유는 발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히 핵심이 빠졌다는 의미로 '앙고 없는 (쥔)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빵에 굳이 앙고를 채울 필요는 없다. 발효야말로 진짜 앙고이자 납작한 빵을 사뭇 다른 음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발효는 어떻게 가능할까? 효모는 전분의 당을 먹고 알코올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빵 속살의 다공질 조직이 바로 그 흔적이다.

빵의 발효는 풍선 부풀리기에 비유할 수 있다. 반죽에 붙어넣은 공기를 버틸 만큼 탄성을 지녀야 터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죽의 탄성은 단백질인 글루텐(Gluten)*이 책임지는데, 밀가루에 물을 더해 치대면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닌(Gliadin)이 만나 글루텐을 형성한다. 반죽을 계속하면 엉켜있던 글루텐의 타래가 풀렸다가 다시 그물과 같은 조직을 이뤄 반죽을 지탱해준다. 이 과정에서 글루텐의 탄성 덕분에 반죽을 구우면 빵 특유의 질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밀가루에게 단백질은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면

힘이 세니 강력분(強力粉)이라 부르고, 그 아래로는 중력분(中力粉), 힘이 없는 밀가루는 박력분(薄力粉)이라고 한다. 각각 빵용, 다목적용, 케이크용으로 쓰인다.

발효는 탄성뿐만 아니라 맛도 책임진다. 겉절이가 김치만큼 깊고 복잡한 맛은 내지 못하듯, 발효를 제대로 못 시킨 빵은 예쁘고 식감이 좋아도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빵은 두 번의 발효를 거친다. 1차 발효에는 반죽을 만들어 덩어리째로 부풀리며 맛을 다듬는다. 1차 발효는 반죽이 처음 부피의 약 두 배까지 부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도가 높으면 빨리 부풀지만 맛은 떨어지고, 낮으면 천천히 부푸는 대신 한층 더 복잡한 맛이 생긴다. 효율로만 본다면 섭씨 27도가 최적이지만, 맛을 추구한다면 발효는 냉장실에서도 가능하다.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원하는 무게로 나눈 뒤 20분 정도 두었다가 모양을 잡아 2차 발효를 한다. 바로 이때 우리가 먹는 빵의 모양과 부피를 갖게 된다.

2차 발효까지 거치면 구울 단계다. 재료나 반죽의 수분 비율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70~200℃의 온도에서 빵을 굽는다. 빵 굽기도 몇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반죽이 오븐에 '입실'하면 수분이 빠져 나오게 된다. (통상 '말린다'는 표현을 쓴다.) 이 과정에서 2차 발효까지 마친 반죽이 열을 받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말리기'가 끝나면 반죽의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반응하는 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빵의 껍데기 색이 노릇하게 변하며 바삭해진다. 굽기가 끝나면 비로소 빵이 완성된다. '갓 지은 밥'처럼 '갓 지은 빵'도 맛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오븐에서 바로 꺼낸 빵은 뜨겁고 맛도 없다. 일단 빵의 온도가 내려가고 맛도 어우러지도록 잠시 기다리며 식혔다가 다시 구워 먹으면 빵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풀(Glue)과 어원이 같으니, 그 특성과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신본사 루프 가든

삭막했던 서울 용산에 등장한 눈부시게 흰 건물 ‘예술’이란 인류공통어로 ‘연결’을 꿈꾼다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근래에 서울 용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강대로 100번길에 눈부시게 멋진 건물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조선백자의 뽀얀 우윳빛처럼 단아하고 세련된 백색을 띤 이 건물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신(新)본사입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얀 불빛이 건물 전체를 휘감아 눈을 땔 수 없게 만듭니다. 뷰티기업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자리에 세 번째 건물을 짓고 새로운 용산시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용산은 이 회사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창업주인 서성한 회장(1924~2003)이 1956년 용산에서 사업의 기틀을 세웠고, 1976년에는 10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옥상에 ‘아모레’라는 커다란 광고판이 세워졌던 황톳빛의 육중한 빌

딩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선하면서도 우아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태평양’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회사가 세계시장을 누비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했듯 신본사 또한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약칭 APMA)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50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수장고, 뮤지엄샵, 라이브러리 등을 갖춘 APMA는 요즈음 국내 기업 미술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반가운 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미술관은 고미술과 현대미술, 한국미술과 해외미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매

년 3~4회씩 비중있는 기획전을 개최한다니 예술 애호가라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1만 점에 달하는 APMA의 컬렉션에는 고려 미술의 정수인 ‘수월관음도’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비롯해 회화, 조각, 설치 공예, 사진, 미디어아트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5월 미술관 공식 개관 때는 컴퓨팅 기술 등을 사용한 공공 미술을 펼친 멕시코 작가 라파엘 로자노-헤머의 개인전을 연다는군요. 이 작가의 개인전은 국내 최초입니다

이 건물은 미술관뿐 아니라 건물 전체가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최첨단 건물이 도심 곳곳에 많이 지어졌지만 아모레퍼시픽 본사처럼 심미성을 중시에 놓고 세세하게 미적 완결성을 추구한 건물은 흔치 않기 때문입



1 신용산역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로 아티스트의 세련된 작업으로 조성됐다.



2 용산에 간결하면서도 산뜻한 모습으로 새로 등장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지하에는 멋진 미술관이 자리를 잡았다.

니다.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건물은 사각의 그 리드(격자무늬)가 끝없이 이어지며 건물 전체에 일관된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1층에는 은행이 자리잡고 로비까지만 일반인 의 출입이 가능한 여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름 입니다. 은행이 들어설 만한 자리엔 '캐비닛'이라 는 미래지향적인 건축 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이 며, 정문 옆에는 높이 6m의 시원스러운 대형 꽃 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업시설은 최소화하고, 공간을 최대한 시원하게 비워 쾌적 함을 살린 거조. 기존 대형건물의 공식을 깬 역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하 1층에 서부터 지상 3층까지 시원하게 뚫린 아트리움 은 지역주민은 물론 누구나 마음껏 출입할 수 있 는 공간이자 시설입니다. 아트리움 2층과 3층 의 전망 좋은 자리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폭 신한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공사비만 5,0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아모 레퍼시픽 본사는 설계 당시부터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과 시설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낳 은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설계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치퍼필드는 차분하면서도 간결하고, 우아한 디 테일이 돋보이는 건축설계로 유명합니다. 또 기 능적으로도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받습니다.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상 (賞)을 받은 그의 작품 베를린신(新) 박물관은 유럽건축가협회로부터 '현대와 과거의 놀라운

조화'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킹스턴 폴리테크닉과 진보적인 AA스쿨을 거 치며 모더니즘의 정수를 습득한 치퍼필드는 현 재 세계 각국에서 30여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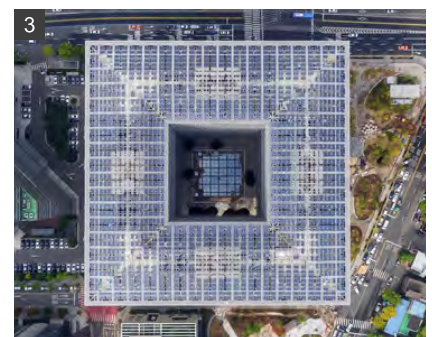
치퍼필드는 화려한 기교 없이 단아한 아름다 움을 지니면서도 풍부한 느낌을 주는 조선백자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아모레퍼시픽 본사 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건물 중앙을 사각으로 비운 중정과 기둥 등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 해석한 것이지요.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의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해 젊은 건축가들과 협업해 신본 사 주변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신본사와 연결되 는 신용산역(4호선) 지하 공공보도는 에스טיפ이 엠제가 건축사무소(이승택, 임미정 건축가)가, 본사 뒤쪽의 공원관리실은 양수인 건축가가 맡 아 디자인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숨씨 또한 빼어납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7천 명이 함께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건물인데, 그 안에 3개의 정 원, 즉 '루프 가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층 과 11층, 17층에 5~6개 층을 과감히 비워내 고 조성한 건물 속 정원으로 인해 직원들은 어 느 위치에서 근무하더라도 늘 자연과 호흡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의 5층 천정에 물을 채워 넣 어 한낮이면 햇빛의 파장이 1층 바닥까지 물 겹을 드리웁니다. 자연이 그리는 잔잔한 추상 화이지요.

이 건물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자연과 도 시, 지역 사회와 회사, 고객과 직원 사이에 자 연스러운 교감과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개방적이면서 통합적인 업무 공간이자,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을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격(格)을 높인 건축 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건물 의 저층부는 수익성을 고려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처럼 공공을 위해 그 비싼 부지 를 시원스레 비워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 니다. 미술관 측은 앞으로 기획전에 참여할 작가들의 대형 작품을 16.5m 높이의 아트 리움 천정에 매달거나 로비 곳곳에 설치해 건 물에 예술적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아트 특화' 빌딩다운 플랜이지요.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신용산역 1번 출구와 연결돼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결통로 에도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은 아름다운 공공보 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측은 건축 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퍼필드의 디 자인 철학을 살피는 건축투어를 진행할 계획이 라고 합니다. 또 문화강좌라든가 아카데미도 순 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바꾸고 격(格)을 높인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매력은 공공에게 기 께이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술관 입장료 9천 원이면 하루 종일 이 공간을 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미술을 감상하며 안목도 높이고, 아름다운 건축과 정원 탐색으로 예술 힐링도 하면서 말이지요. 



3 하늘에서 본 아모레퍼시픽 신본사. 친환경 빌딩답게 옥상은 태양열 패널로 덮여있다.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신임 중재위원 16명(서울 7명, 지역 9명)이 위촉되었다.

• 2018. 3. 8.자 위촉 (2명)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임기
경기중재부	오동현	• (현)법무법인 예지 변호사	2018. 3. 8. ~ 2021. 3. 7.
제주중재부	김건일	• (전)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 2018. 3. 20.자 위촉 (14명)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임기
서울제1중재부	최석문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서울제2중재부	이우철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서울제4중재부	박병대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서울제5중재부	김형훈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20. 11. 8.
서울제6중재부	김행순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11. 8.
서울제7중재부	황기선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서울제8중재부	박미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20. 3. 30.
부산중재부	전상훈	•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광주중재부	박길성	• (현)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대전중재부	염원섭	• (현)대전지법 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강원중재부	김현미	•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충북중재부	지영난	•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전북중재부	구창모	•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20. 3. 30.
경남중재부	황영수	• (현)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 3. 20. ~ 2018. 8. 31.

◆ 위원 사퇴

•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사퇴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사퇴일자
서울제3중재부	신현대	• 연합뉴스 논설위원, 전무이사 • (현)한서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2018. 3. 19.

위원회 뉴스

◆ 사무처 인사 (2018년 3월 12일자)

승진 : △1급 운영본부장 정희성 △2급 심의1팀장 임종우

△3급 조사1팀 차장 박은영, 조사2팀 차장 이정희, 홍보팀 차장 최은진, 심의2팀 차장 김정민, 경기사무소장 이진아

전보 : △심의실장 이수종, 기획팀장 구윤희, 예산회계팀장 윤치경, 조사1팀장 류석창, 조사2팀장 강현석,

접수상담팀장 김윤정, 교육팀장 손정배, 연구팀장 안백수, 홍보팀장 남승균, 심의2팀장 김문성

◆ 신규 직원 채용

성명	근무부서	임용일자
전우람	기획팀	2018. 3. 19.
정부경	총무팀	
최지선	교육팀	
이병연	홍보팀	
양희원	심의2팀	
박성수	심의1팀	2018. 3. 30.

◆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는 3월 9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사업 계획, 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따뜻한 아이디어

Embrace Infant Warmer

입는 인큐베이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중의 98퍼센트가 개발도상국가의 신생아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은 쉽게 질병에 노출되며 체온 유지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체온증은 신생아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기 힘들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저체온증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석탄을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며 저체온증을 막아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무엇보다 신생아에게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지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미국의 사회적 기업 Embrace는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아준다는 뜻을 가진, 값싸고 간편한 휴대용 인큐베이터 'Embrace Infant Warmer'를 개발했습니다. 이 워머는 히터, 파우치, 침낭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히터나 뜨거운 물로 20분간 파우치를 충전한 후 파우치를 침낭 안에 넣고 아기를 눕히면 6



시간 정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여 아기의 체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워머의 가격은 25달러로 일반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비용의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일회성이 아니라 50회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가정에 워머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 10만 명의 아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Embrace사의 목표는 모든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입는 인큐베이터를 탄생시킨 것처럼, 소중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 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출 마감

〈연구논문〉

논문 제출마감 : 2018. 5. 15.(화)까지

제출 방법

이메일(journal@pac.or.kr)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